

# 경제회복 이후의 심사적체

## 우리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인가?



그림1. AIPLA Alan Kasper 회장의 격의 없는 인사말

### 들어가며

아직은 세계 경제가 활황에 접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개 깊은 경제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면 곧 기회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지만, 세계 경제는 아직도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경제위기의 여파에 근심하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경제가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의 여파로 화산재피해에 대해서도 심각한 시각들이 던져지기도 했다. 유럽의 주요 공항에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아 발생할 물류흐름의 차단과 여행객들의 주춤한 발걸음을 수많은 언론사들이 곧바로 '항공대란'이란 제목으로 전 세계로 퍼뜨린 것만으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상황을 지구단위의 위기로 보기보다는 경제권역단위의 위기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만큼 유럽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상황이 주는 여파는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공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까지 비관론을 고수한다면, 이런 지역적인 경제위기가 확대될 위험이라든지, 최대한 위기감의 고조를 억제하려는 의지가 실제 규모의 경제적 충격을 왜곡하여 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재 제품에서 기간산업 위주의 기술개발로 기수를 돌렸던 일본의 우수기업들이 다시금 소비재 분야에서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다시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기술경쟁력으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애플과 삼성이 각각 4

세대 아이폰과 고사양의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하여 기술경쟁을 부채질 하고 있는 점에서도 경기회복의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기술경쟁은 곧 특허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술의 가장 효율적인 보호책으로 마련된 것

이 특허제도인 만큼,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은 더욱 강화되고 세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양적인 증가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특허청을 비롯해서, 각국 특허청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와는 다른 특허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과거만큼의 양적인 증가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마다, 특히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에 참가한 기업들에게서,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된 결과, 출원기술에 대한 심사 역시 질적인 제고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우리 내부의 논의는 아니지만, 전 세계 IP 트렌드의 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AIPLA라는 민간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된 콜로키움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

### 콜로키움의 개요

AIPLA는 미국의 IPO, 일본의 JIPA, 유럽의 Business Europe이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3국 IP 유저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식재산관련 입법에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조직이다.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미국 이외에 유럽지역을 순회하면서 해마다의 IP 관련 주요 논의 주제를 정하고, 각국 특허청과 관련 IP 기관들을 초청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는 자리를 열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 웰컴 리셉션을 시작으로 18일까지 3일간 계속된 이번 콜로키움은 FICPI 라는 유럽기반의 협력단체와 함께 유럽지역을 순회하면서 갖는 세미나로서, 올해는 'Patent Backlog' 를 주제로 하여,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영국 특허청(UKIPO), 중국 특허청(SIPO), 한국 특허청(KIPO)를 비롯해서,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의 유럽 내 주요 국가 특허청 관계자를 초빙했으며, 민간 단위에서는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를 비롯해서, 미국의 IPO, 일본의 JIPA, 유럽의 Business Europe은 물론 영국의 소규모 IP 조직까지도 초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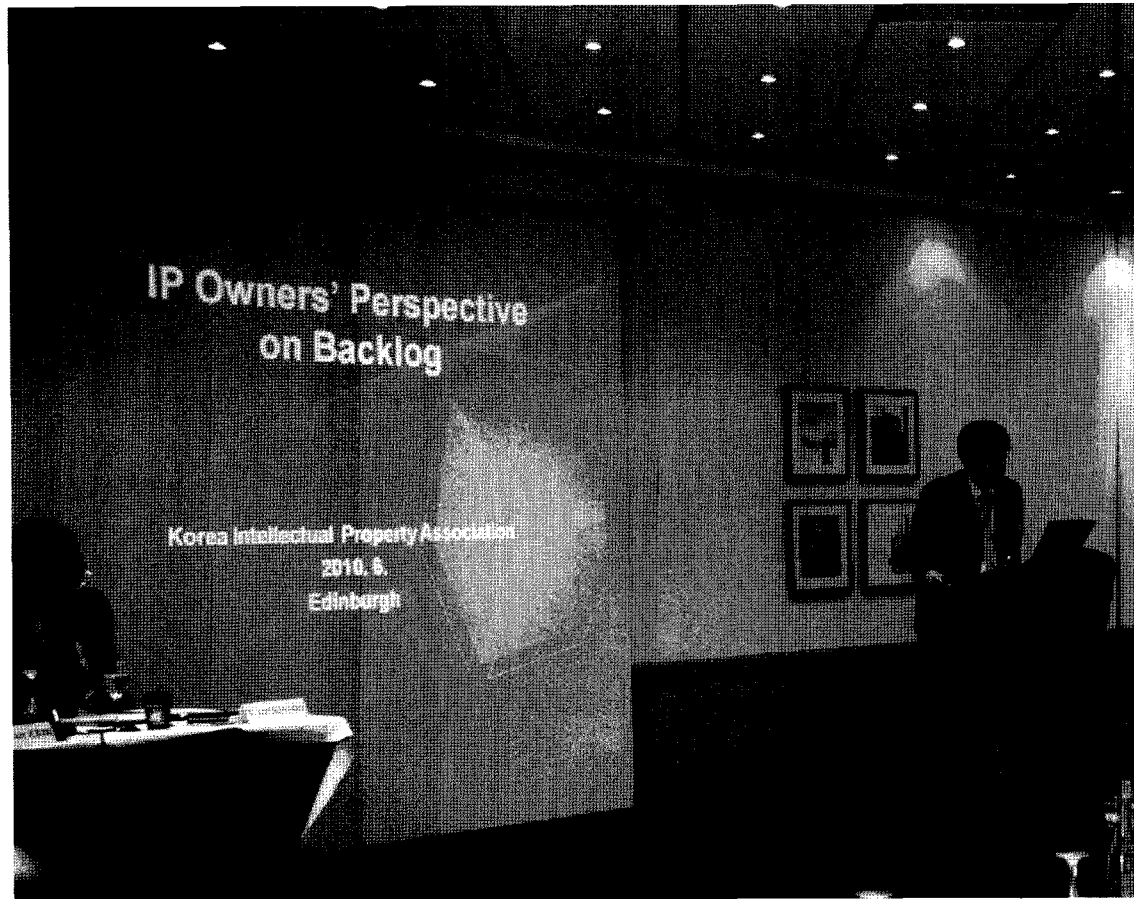


그림 2. 우리 기업의 심사체제 관련 의견을 발표한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이용관 부장

참가자들을 나라별로 보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대만,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7개국에서 80여 명의 IP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문가들의 모임이었다. 이전의 미국 IPO의 Annual Meeting과 비교해서 드러나는 차이점으로, IPO의 경우는 대체로 inhouse IP counsel의 참여가 많은 반면,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외부 변리사나 Law firm 등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었다. 해외의 다양한 성격의 국제적 행사들을 통해서 한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도 얼마나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번 행사가 개최된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를 비롯해서,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인 니스 등과 같은 풍광이 뛰어난 원격지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집중되면서도 허심탄회한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논의 주제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서 심사적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방안은 크게 특허청 간 상호협력을 통한 work-sharing 및 recognition, 그리고 PPH(특허심사하이웨이) 및 PCT 등 기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제시되었다.

심사적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활동이 금전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은 없기에, 이 손해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식재산권의 시간적인 불명확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권리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으로써 특허를 통한 제품화 등의 사업적 판단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를 통한 제품의 보호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종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자칫 열세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쟁기업을 자사의 기술경쟁력으로 앞지르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적극적인 권리주장의 근거를 불확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

둘째로,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을 매입하거나 이들 기업이 가진 우수한 지식재산을 매입하기 위한 전략에도 불확실성을 주게 되고, 특허가 장기간의 미등록됨으로 인한 관련 예산의 증가도 심사적체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기업이 예측한 권리획득의 시기가 짧게는 수 주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지연이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과연 특허라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경제적 가치가 있을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림3. USPTO 대표에게 유난히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 해결방안의 모색

2010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USPTO와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양 기관은 특허출원과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계획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특히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심사적체의 해소를 최상위의 정책과제로 삼아 이를 추진하되, 기본적인 해결방안의 틀은 양 청간의 work-sharing을 기본 토대로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출원과 출원에 따른 심사의 결과물을 미국과 영국 특허청 간에 공동 사용함으로써, 이중 출원에 의한 심사적체를 우선적으로 피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현재 양국 간의 합의만 나온 상황이지만, 현재 유럽 특허청을 비롯한 3국 특허청 간에는 이미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문화와 언어와 법체계가 유사한 두 개의 나라가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결국 대체적인 각국 특허청의 의견은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개별국의 특허청에서 특허심사에 활용했던 판단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상대국의 특허등록결정을 신뢰하여 자국 출원이 개시되었을 때에, 상대국의 판단자료와 등록결정을 기초로 특허를 조속히 내준다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위해 향후 보다 세분화된 논의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어쨌든 협의의 방향은 확고히 세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부 발제자 가운데에는 PCT 활용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도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PCT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WIPO에서도 앞으로 발표할 PCT II를 통해 심사적체의 문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또한 이미 PCT를 활용하여 출원업무를 전개하고 있는 patent lawyer나 attorney 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4. 각국 특허청에서의 의견발표 중 특허청 김창룡 차장이 패널로 참석(왼쪽에서부터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대표 순)



그림5. 패널과 청중이 따로 없는 열띤 토의 분위기

추가로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사례의 하나는, 유럽 내 국가 간의 협력활동이다. 유럽 특허청 EPO는 유럽이라는 광대한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특허정보의 활용과 국가 간 상호협력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PCT나 EPC, 유럽 내 국가 간 1:1 공조협약, Paris Criteria와 같은 협약차원의 노력이나, Euro-first, National first, PCT SA, Euro-second 등과 같은 출원심사시스템의 운영 노력 등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자간 혹은 양자 간 협력과 노력의 결과를 벤치마킹하고 평가해 보는 것으로도 보다 효율 높은 특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후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그 외에 특허청별로 심사인력의 증원이란든지 예산의 증액 등을 추가적인 대안으로 제안하는 등 일련의 후속대응 논의가 있었다. 대체로의 논의는 특허청 간의 특허상호인정과 정보공유에 초점이 있었지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기업 수준에서는

일부 파격적인 의견도 없지 않았다. 특허 확보 노력과 비용에 대한 의심으로 볼 수도 있는데, 특허권 획득 이외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특정한 기술 분야의 기업인 경우, 기술의 공개 없이 일정한 컨소시엄이나 표준화단체를 설립하여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허출원으로 인해서 발생할 분쟁의 위험을 배제하고, 기술 공개를 제한하여 특허를 통한 기술보호가 아니라, 특정기업 간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정거래나 영업비밀 보호 등의 경제관련 법률을 통한 보호전략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기업은 기술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특허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를 하겠지만, 만일 특허를 통한 권리의 확보와 보호가 예상을 넘어서는 정도의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특허제도가 국가의 심사권을 통해서 창설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분히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요소가 스며들게 되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권리의 발생 자체를 방해하는 역기능을 할 때엔 권리획득과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허제도가 앞으로도 유효하게 기능하리라는 점에 대해선 별다른 의심은 없지만, 기업들이 취하는 다양한 기술전략 가운데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특허권의 활용이라는 점은 인식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기술동향과 기술전략에 민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결론**

심사적체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3 Track Prosecution System을 미국 특허청에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한국 특허청의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표현은 없었고, 미국 특허청이 새로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라는 소개를 들을 수 있었다.

비록 이런 점 때문만이 아니라도, 세계적인 IP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의 활동이 매우 저조했다는 점에서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변리사 단체는 물론이러니와 한국발명진흥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이 충분치 않았음을 애석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너무 단출한 리뷰였지만,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안타깝게도 논의의 핵심은 주요 특허 3국의 관계자들에 집중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서 언급한 참여국들의 면면을 보면, 경제개발과 기술개발의 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특허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해외에 출원하는 비중이 해외 기업이 우리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이들이 특허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대하고 평가하는 것은 경제규모에 비해 다량의 특허를 생산해 내는 나라이고, WIPO를 비롯한 각국 특허청의 다양한 출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라라는 인식에 시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소위 우리가 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최대 고객의 하나라는 점에서 대우받는다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출원·심사시스템과 고품질의 특허가 출원되는 나라라는 인식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보다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능숙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논리를 펼치는 힘과 지혜를 더욱 기르지 않으면, 저들의 눈에 한국은 단지 특허서비스의 소비자로 비칠 뿐이다. **한국발명진흥회**



그림6. 콜로키움 이후 일정으로 이루어진 Business Europe 본부 방문 (좌로부터 벨기에 김희태 주재관, 필자, BE 사무국의 IP담당 어드바이저 Ilias Konteas, 삼성코닝정밀소재 이용관 부장, LG화학 이혜라 과장)



그림7. 콜로키움이 있던 영국 에든버리의 에든버러성 앞에서



**이 태 원** 계장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논문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고찰